컴퓨터 바이러스 치료와 예방

3월 바이러스 축제의 달

현대는 정보의 시대이다. 하루에도 수만가지 정보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된다. 여기서 컴퓨터는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전달의 기계보다는 고난도 기술을 전달하는 생명체이다. 이러한 컴퓨터에 감기를 옮기는 바이러스처럼 컴퓨터도 병에 걸리게 된다. 바이러스란 치료가 되거 않는 병으로 어느정도 약화시킬수는 있을 뿐 예방이 절대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이러스들을 보면 독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는 거의 없고 나름대로 각기 다른 코드가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발견 장소나 특징 기종명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글에서는 3월에 발견되는 바이러스의 종류와 예방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3월에 나타나는 바이러스에는 3월 한달내내 자료를 파괴하는 악세버그와 15일에 발병되는 아야리시 말츠, 그의 토요일 바이러스, 일요일 바이러스, 디스켓 살해 바이러스와 667살해 바이러스 등이 있다. (편집자)

자신을 기생시켜 프로그램을 파괴

'D-day'전 사전 점검 필요

최신 예방 정보에 관심 가져야

한 정 수
(전산과 박사 6기)

우리가 사는 시대를 컴퓨터 시대라고 한다. 그렇듯이 이제는 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이 컴퓨터로 Report를 작성하고 수식을 계산하고 생활의 휴식을 얻고 또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잡았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들어보았거나 감염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연 컴퓨터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어느날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한 동작을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증상의 대부분은 컴퓨터바이러스라는 요상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된다.

그럼 컴퓨터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다른 프로그램에 자신을 기생시켜(복제) 컴퓨터속에서 프로그램(화일)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바이러스처럼 자기 증식(복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란 이름이 붙여졌다. 사실 필자는 바이러스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컴퓨터에서도 세균이!!!'라며 놀란 적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 바이러스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컴퓨터바이러스의 가장 일반적인 감염경로는 이미 감염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감염된 프로그램속에 있던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속에 있는 다른 화일속에 복제되어 화일을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불법복제 디스켓속에 바이러스가 많이 살고 있으니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며칠전 매스컴에서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떠들었다. 그리고 그전에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에 걸려서 큰 손해를 본 여러 회사들이 소개 되었다. 마치 어떤때는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다른때는 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모든 바이러스가 똑같이 기승을 부린다. 다만 특정한 날짜에 활동한다던지 변종(어떤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변형시킴)이 많이 성긴다던지 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처럼 보일뿐이다.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3월 6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다른 컴퓨터를 감염시키다가 3월 6일에 하드 디스크의 내용을 지워버리는 부트바이러스다.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는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도 한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13일의 금요일이 되면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지워버린다.

브레인 바이러스는 198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파키스탄 바이러스라고도 부른다. 브레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디스크의 이름이 Brain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이병철 바이러스는 하드디스크를 감염시킨다. 미국에서는 코리안 바이러스라고도 한다.

그 외에도 dark avenger, stone virus 등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바이러스를 슬슬 잡아보자.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지?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걸리지 않으면 치료도 필요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많은 자료의 교환은 필연적이다. 최대한 조심을 했지만 에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과리약을 뿌릴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포멧을 할 수도 없다. 다행히 주변에서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백신으로는 V3(Vaccine III), TV(Turbo Vaccine)가 있다. 백신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파괴로부터 시스템과 데이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 검사,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만약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치료하면 된다. 그러나 백신이 치료하지 못하는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자 그럼,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컴퓨터의 전원 스위치를 켤 때는 반드시 자기의 도스(DOS)디스크를 사용한다. 하드디스크가 달려 있는 컴퓨터라면 하드디스크로만 부팅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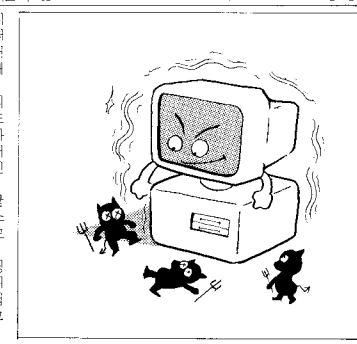
두번째 컴퓨터 통신으로 받은 프로그램은 일단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한다.

그리고 플로펴디스크로 부팅시킬 경우에는 부팅용 도스디스크에 반드시 쓰기방지탭(write protect tab)을 붙이고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백신프로그램으로 자주 점검해 준다.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한 그것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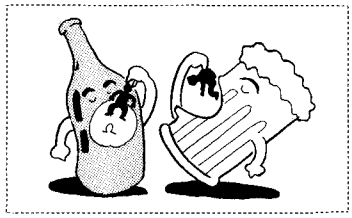
컴퓨터는 매우 편리한 기계이지만 결국은 단지 기계일 뿐이다.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뿐만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작은 신경만 써주면 훨씬 유용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에세이② 임상일지

술이 사람을 먹는다(?)

김 화 숙
(김화내과 의학박사)



수년 전 많은 일본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술을 마시고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1차, 2차, 3차…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주부들의 바가지를 유발시키고 가장은 이로 인해 더욱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사정도 다를 바가 없지만 특히 일본은 집이 너무 좁아서 일찍 들어가봐야 휴식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오히려 답답해서 가장들이 밖으로 나돌게 되면서 1차,2차와 같은 음주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1차에서 계속 이어지는 술집돌기는 일반화되어 있고 젊은 층에서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술잔을 한 번 잡으면 끝장을 내고 끊길때까지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3월,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회가 대학가에서 속속 열리고 있다. 고등학교때까지 눌려왔던 감정을 폭발시킨다는 아니면 대학에 입학한 것을 환영한다는 표현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술을 권하는 풍경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사발식'이고 불리는 의식, 커다란 사발안에 동동주나 막걸리 또는 다른 술들을 가득 채워 후배들에게 '원 샷'을 하는 풍습(?)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러한 의식이 너무 지나쳐 때로는 불행을 초래한다. 며칠전 광주 H대에 다니는 학생이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과음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필자가 덴마크로 연수를 가서 그 곳 과장님의 환영회에 초대받았을 때,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 와서 최고급 술을 내놓는다고 하여 기대를 잔뜩하고 있었는데 3분의 1정도 들어있는 조니워커 레드의 술병을 꺼내어서 아주 조금씩만 따라주고 나머지는 다시 넣거두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깟 조니워커레드를 아낀다고 이 나라 사람들도 별볼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선진국 대우를 받는 그 나라의 술문화는 바로 한두잔으로 즐기는 여유있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즉 술이 주가 아니라 만남, 대화,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야 하며 술은 그런 뜻깊은 자리를 돋우워 주는 매개가 아닌가 싶다. 더이상 사람이 술을 먹는지 술이 사람을 먹는지 모른 극한 상황을 삼가는 것이 건강에도 이롭지 않을까?

습관성 음주, 성격변화에 영향

여기서 잠시 의학적인 면을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술을 한두잔 먹고 토하다가 그것도 적응을 못해 몸무림을 칠 정도로 힘들어한다. 그러나 위를 버리고 출혈성 위염이 생기는가 하면 급성 궤장염도 올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점차 술이 늘어 지속적으로 먹게되면 머지않아 지방간이 되게 된다. 점차 지방간이 심해지면 알콜성 간염 내지는 알콜성 간경화까지 가게되고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소위 알콜리즘이 되며 이 때가 되면 사람의 성격까지도 변하게 된다. 이만큼 한 잔으로 시작한 술이 어느덧 인생을 좌우하게 될 정도가 되므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술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신세대라고 불리우는 요즘 젊은이들은 절제와 이성이 앞선다고 들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주량껏 마시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설계하며 선후배간의 뜻깊은 대화가 오간다면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신세대의 술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세시봉

이유경 문화부장

우리 삶과 분리된 문화 이론

소설 '개미'로 인기를 모은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어로도 어려운 '옴베르트 에코'나 '미셸 푸코'의 저서가 잘 팔린다는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중들이 그 책들을 어느정도 이해했는 지는 미지수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많은 문화이론이 수입되어 실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등의 문화이론을 뜻하는 외래어가 대중화된 것은 이미 고전적인 얘기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이론의 선진성이나 참신함, 시대적 조류로서 인식되던 단계는 지났다. 이른바 약방의 감초다. 영화나 연극, 책의 광고에 종종 인용될 뿐만 아니라 옷의 이름으로, 커피숍의 이름으로, 옷가게 이름(회기동에 위치)으로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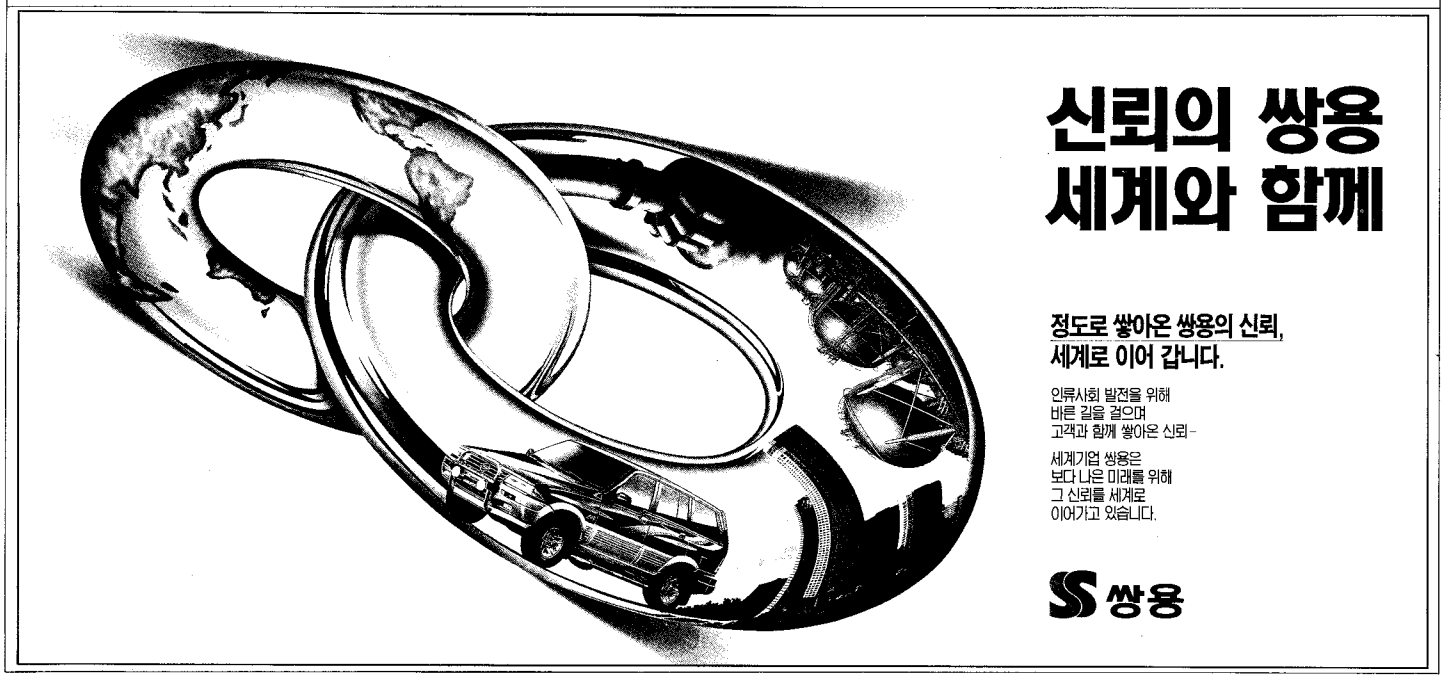
또한 80년대 미국에서 여론운동 및 사회적 민주운동으로 발달한 페미니즘도 국내에 유입되어 또 하나의 유행의 축이 되었다. 영화로는 페미니즘 논쟁을 불러 일으켜 온 '그대 안의 불루'가 있었으나 그저 여성을 주제로 담았을 뿐 페미니즘이라 명명하긴 미약할 뿐이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인 연극계인데 윤석화, 김지숙, 박정자, 손숙 등의 연극배우들은 텔레비전 연속극에 올고 웃긴 4, 50대 주부들을 극장으로 대거 이동하게 한 장본인들이다. 1989년부터 199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로젤',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5월의 왈츠' 등은 페미니즘이라 불리기에는 이르지만 모두 여성을 주제로 다루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수입된 이론들은 본연의 의도 그 자체로 보급되었다기 보다는 문화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담이 되는 문화 이론이 고부가 상품으로 가공되어 팔리고 있다는 것은 예상일이 아니다. 출판업계나 영화 등의 기획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대중의 '지적 허영심'을 건드려 성공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술의 교묘함보다 먼저 와닿는 것은 대중이 느끼는 강박감들이다. 모르면 남보다 뒤처질것이라는 위기의식들, 현대를 정의할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들, 급한대로 선진이론을 궁여지책으로 껴맞추려는 시도들…. 90년대가 중반에 들어선 오늘날까지도 이 시대를 표현할 우리만의 언어나 소재는 부재중이다.

형식은 외국에서 빌려오고 내용은 과거에서 끌어온다. 그래서인지 계속 뒤돌아본다.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후일담문학의 선두주자 김인숙, 공지영, 공선옥, 김영현, 최영미 등 30대작가들이 빨아내는 작품에서 가열한 80년대가 재현되고 있다.

공지영 등의 여성작가의 소설과 영화 감독 이현승의 최근작 '내온속으로 노을지다'를 통해서는 '페미니즘'과 '80년대'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아마도 이 두 요소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상승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담론이 무성한 90년대는 삶과 문화가 분리되어 있다. 이 시대 최고의 과제는 우리식 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리라.

가려워도 등을 긁고 기댈 산은 신기루인 저 멀기만 하다. 이제 그 산을 찾아 떠나자.



신뢰의 쌍용
세계와 함께

정도로 쌓아온 쌍용의 신뢰,
세계로 이어 갑니다.

인류사회 발전을 위해
바른 길을 걸으며
고객과 함께 쌓아온 신뢰-

세계기업 쌍용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그 신뢰를 세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S 쌍용